



# 프로그램 진행개요

<b>프 로 그 램 명</b>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b>목 표</b>	자연과 함께한 불일폭포 관찰로의 역사를 통한 새로운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탐방객들에게 자연사랑의 중요성을 현장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계기 마련		
<b>해 설 주 제</b>	탐방객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자연 역사이야기		
<b>해 설 재 료</b>	안내책자, 구급약, 카메라, 메모장, 돋보기	<b>소 요 시 간</b>	2시간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2시간
<b>동 기 유 발</b>	1. 국립공원이란	탐방객들과 인사나누기 국립공원이란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	안내지도, 팸플렛	20
<b>해 설 주 제</b>	2. 자연과의 첫 대면 행동 과 주의 사항	주요지점의 해설과 안전주 의 설명		10
<b>주 제 심 화</b>	3. 해설 1지점	동백나무에 대한 설명	팸플렛	7
	4. 해설 2지점	우리민족과 소나무와의 소 중한 관계		7
	5. 해설 3지점	피톤치드의 효능이 인간에 게 주는 이로움		7
	6. 해설 4지점	계곡속 수서생물과 함께	돋보기, 들채	7
	7. 해설 5지점	봄이 되면 생명을 얻는 식 물 관찰하기		7
	8. 해설 6지점	환학대에 유래		10
	9. 해설 7지점	자연속의 동.식물에 대한 설 명(비비추, 지리개별꽃 남산제비꽃, 현호색)		5
	10. 해설 8지점	마죽대의 전설		15
	11. 해설 9지점	불일평전 유래와 자연에서 즐기수 있는 놀이체험		10
<b>정 리</b>	12. 해설 10지점	불일폭포의 전설과 불일암 에 대하여		10
<b>마 무 리</b>	13. 탐방객에게 질문과 답변과 마지막 인사			5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국립공원이란	<p><b>* 탐방객과의 인사나누기</b> 여러분 안녕하세요~저는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에 근무하는 환경안내원 서정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연과 역사 속으로 저와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의 눈앞에 멋지고 아리따운 분들은 어디서 오셔는지요 아~네 정말 멀리서 오셨군요 힘들게 국립공원을 찾아 주셨으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해설하는 동안 퀴즈가 하나씩 나갈겁니다 맞추시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갈것임으로 열심히 제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p> <p><b>* 국립공원 소개</b>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자연을 위해 생각한 것 중 최고의 아이디어가 “국립공원제도”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은 국가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와 문화, 역사자원을 잘 보전하여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지속적으로 자연을 탐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나라고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곳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국립공원의 이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140여 개국에서 국립공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일까요?)</p> <p><b>* 지리산 국립공원 소개</b>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대답 : 지리산국립공원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신선이 내려와서 살았다는 삼신산의 하나로서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지혜(智慧)로운 이인(異人)이 많이 살았다’하여 지리산(智異山)이라 합니다. 또한 ‘멀리 백두대간이 흘러왔다’라는 뜻으로 두류산(頭流刪),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여 방장산(方丈山)이라 하기도 합니다. 위치는 영호남내륙지역의 경계에 자리 잡고 동쪽의 천왕봉에서 서쪽의 바래봉에 이르는 45.0km의 주능선이 동서로 형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전남 전북에 분포되어 산청 하동 함양 구례 남원 등 1개시 4개군 15개 읍·면에 걸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440.517km<sup>2</sup>,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하자면 1억 3천만평 이상으로 추정되며, 지리산 둘레는 320km 약800리로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지리산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우리의 자연을 자유롭게 탐방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천왕봉(1,915m),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의 삼대 주봉을 연결하는 종주능선(25.5km)이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10경이라 불리는 천왕일출, 불일폭포, 섬진청류 등 경관자원과 쌍계사와 같은 수많은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입니다.</p>
자연과의 첫 대면 행동과 주의 사항	<p><b>* 불일폭포 관찰로의 간략한 설명과 안전주의 사항 설명</b></p> <p>탐방객 여러분께서 탐방하고자하는 불일폭포 관찰로의 코스는 거리가 2.4km로 되어있고 환학대, 마죽대, 불일평전, 불일암, 불일폭포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1시간 30분정도로 예상되며, 거리를 생각해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로를 오르면서 동.식물들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산행을 하시면서 조금만한 현 위치 표지판이 보일 것입니다. 이표지판은 탐방로상에 500m 상으로 설치되어있으면 탐방객이 조난을 당했을때 위치표지판의 번호를 알려주시면 보다 빠르게 조난자를 찾을수 있는 시설물입니다.</p>
(해설 1지점) 동백나무에 대해 알아보기	<p><b>* 동백나무에 대해 알아보기</b></p> <p>지리산 동백나무는 흔히들 내륙의 한계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상록활엽수로 연평균기온이 14℃ 이상 되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쌍계사 지역에는 곳곳에 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동백나무는 지리산 어느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페라 춘희에서 여주인공이 이 동백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아주 잘 나타냈다고 합니다. 25일은 붉은동백으로 남자들로부터 유혹이 가능한 날이라고 표시하였고, 5일동안은 흰동백으로 남자들에게 유혹이 불가능한 날이라고 끼를 나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p> <p>자 그리고 여러분 동백나무와 동박새는 어떤 사이일까요</p> <p>- 동백나무의 꽃은 벌과 나비가 아닌, 새의 도움으로 꽃가루받이를 하는 '조매화, (새에 의해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운반되는 꽃으로 이러한 새는 벌새 ·태양조 ·홍작 등이 있다. 꽃의 구조는 새가 꿀을 빨기 좋도록 발달되어 있다.)다. 열대 지방에는 조매화가 아주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동백나무 하나밖에 없다. 동백나무의 꽃가루받이를 돕는 새는 동박새로, 작은 곤충도 잡아먹니 하지만 동백나무 꽃의 꿀과 열매를 먹고 살아서 동백나무와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해설 2지점) 우리민족과 소나무의 소중한 관계</p>	<p><b>* 우리민족과 소나무의 소중한 관계</b></p> <p>자 여러분 우리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우리 삶에 애환이 담긴 나무는 어떤 나무 일까요?(질문과 대답) 예로부터 소나무를 소중하게 가꾸어와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소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소나무림은 쌍계사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쌍계사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태어나서 소나무로 데운 물에 몸을 씻고 술가지로 금줄을 쳐서 나쁜 기운을 막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소나무 껍질로 끼니를 연명함. 송화 가루로는 떡을 만들고 소나무 잎으로 송편 솔잎차 솔잎술 등을 만들어 먹었다. 송진으로는 불을 밝혔고, 그을음으로는 떡을 만들어 글씨를 썼다. 송진이 땅에 떨어져 굳은 것으로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으며, 소나무 뿌리에서 나는 복령이라는 한약제와 송이버섯이 난다. 죽을 때는 소나무로 만든 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렇듯 소나무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이다. 소나무는 솔나무에서 유래하였는데, “솔”은 가장 우두머리(쓸모가 많은)라는 뜻의 “수리”에서 변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한사람씩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소나무에 상처가 나있습니다. 이 상처는 2차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여 송진을 채취했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민족에게 이와 같은 수난의 아픔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잣나무와 소나무의 구별 방법 중 잎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분.... 예 잣나무는 잎이 5개씩나고, 소나무잎은 2개씩 나는것이 차이점입니다)</p>
<p>(해설 3지점) 피톤치드의 효능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p>	<p><b>* 피톤치드의 효능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b></p> <p>숲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기분이 좋아 질까요? 바로 식물체가 만들어 내는 향기인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곤충이나 동물,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산하는 테르펜(Terpene)이 주성분인 휘발성 물질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체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지만 사람에게 는 쾌적감을 주고 냄새를 없애주며, 항균 및 방충작용을 하는 유익한 물질입니다. 솔잎이나 떡갈나무 잎을 넣어서 떡을 만들면 쉽게 상하지 않고 식물 고유의 향이 나는데 그것이 피톤치드의 역할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잣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삼나무, 편백, 향나무, 측백 이와 같은 침엽수림에 피톤치드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 구멍을 넓게 벌리고 마음껏 맡아 보세요 1년, 10년의 생명이 연장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p> <p>- 피톤치드(Phytoncide): 러시아말로 Phyton(식물) + cide(다른 식물을 죽인다)의 합성어</p>
(해설 4지점) 계곡속 수서생물과 함께	<p><b>* 계곡속 수서생물과 함께</b> (체험도구를 이용해 참가자들 참여 유도)</p> <p>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줄줄줄..돌르르 와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있네요 자 한번 관찰해 볼까요? 여러분 물 속에 뭐가 보이나요. 잘 관찰해 보세요( 썩은 낙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안아요) 여러분 물속안에 낙엽이 썩은 것이 아니라 계곡에 살고 있는 수서생물들이 낙엽을 먹은 흔적들이예요. 자 지금부터 관찰로 계곡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지금부터 들채와 돋보이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이곳에는 옆새우, 강도래, 날도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생물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 계곡수가 1급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생물은 환경변화에 민감해 특정지역의 환경을 표하는 생물입니다. 이러한 지표생물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 아는 대로 말해 볼까요? (질문과 답변)</p>
(해설 5지점) 봄이 되면 생명을 얻는 식물 관찰하기	<p><b>* 봄이 되면 생명을 얻는 식물 관찰하기</b></p> <p>우리가 봄이되면 만물이 소생한다고들 하는데, 그중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들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p> <p>-<b>현호색</b>:산기슭인, 숲속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물기가 많은 줄기는 약해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잘 부러집니다. 예쁘다고 살짝 건드렸다가는 부러지는 상처가 생기니 눈으로만 사진을 찍기 바랍니다.</p> <p>현호색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이곳에서만 볼수있는 꽃은 냇잎현호색 들현호색,빗살현호색 등입니다. 꽃은 비슷한데, 색깔과 잎이 다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호색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보물주머니” 입니다. 어떤 보물이 숨었는지 가만 가만 살펴보세요. 이른봄 생명을 얻어 계절을 빛내는 아름다움 그자체가 보물이 아닐까요!!!</p> <p>-<b>남산제비꽃</b>: 서울사는 아무개씨가 가장 먼저 봤다고 해서 불허진 이름입니다. 남산제비꽃은 향기가 강해서 맡으면 맵싸한 향기와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잎이 코스모스처럼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여러분 관찰로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세요. 군락이 보이시죠... 이젠 남산보다 남부지방이나 경상도 지방에서 더 많이 볼수 있을것 같네요</p> <p>그런 의미에서 지리제비꽃으로 개명을 해야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봄이 되면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먼저 두드리는 꽃은 어떤꽃들이 있나요.(참가자 대답 유도)</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해설 5지점) 봄이 되면 생명을 얻는 식물 관찰하기</p>	<p><b>등골레</b>- 긴 타원형의 열매가 정말 둥굴둥글하게 생겨 정말 이름처럼 생긴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로 즐겨 마시는 등골레꽃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 겨드랑이에 종모양의 백록색 꽃이2-5개씩 매달려 피고, 콩알만한 등골레 열매는 9-10월에 검은색으로 익는것이 특징입니다. 등골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통등골레,용등골레,왕등골레, 층층등골레 등입니다. 등골레꽃의 꽃말은 고귀한 봉사라고 하네요. 2008년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빛낸 가장 고귀한 봉사는 아마 태안해안의 현장에서 땀흘린 여러분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의 하시나요. 오늘 저는 고귀한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p>
<p>(해설 6지점) 환학대의 유래</p>	<p><b>* 환학대의 유래</b> 신라시대 학자 고운 최치원은 신라시대 유명한 학자인데요, 난세를 한탄하여 각지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유면한 문장가로 신라시대 대 문호였다고 합니다. 최치원 선생은 이곳 쌍계사에 많은 유래와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곳은 고운 최치원 선생 이 학을 불러 타고 다녔다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평평한 바위로 환학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에서 쌍계사에 있는 국보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문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운 선생은 많은 유명한 작품이 많았는데, 현재에 남아있는 자료가 얼마 되지 않아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랑도의 난랑비문을 썼다고 합니다.</p>
<p>(해설 7지점) 자연속의 동.식물에 대해 관찰하기</p>	<p><b>* 자연속의 동.식물에 대해 관찰하기</b> -<b>때죽나무</b>:땅을 향해 하얗게 피는 꽃은 마치 은종이 달려 있는 듯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둥근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껍질엔 마취성분이 있어서 찌어서 물에 풀면 물고기가 동동 떠올라 물고기를 때로 죽이는 나무라하여 때죽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빨래를 빨면 때가 잘빠진다하여 불혀진 이름이기도 하고, 스님들이 때로 보였있는 모습과 닮았다하여, 불혀진 이름이기도 하다네요. 정말 웃기죠 이곳 불일폭포 관찰로상 가장 많은 나무 순위에 꼽히기도 합니다. 때로 모여 있는 나무가 확실 하네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쪽동백나무: 이나무는 쌍떡잎식물 감나무목 매죽나무과의 낙엽교목 쪽동백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좀더 이나무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p> <p>이 열매로 기름을짜서 사용하는데 기름을 짜는 나무의 대명사인 '동백'이란 이름과 작다는 의미를 지닌 '쪽'을 접두어로 사용하여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쪽배'에....처럼]'쪽동백' 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른이름은 하얀꽃이 구슬을 꿰어 놓은듯 하고 모양이 깨끗하고 예쁘게 생겼다고 하여 '옥령화'[玉鈴花]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p> <p>동백과는 모양이나, 생김새, 수피 어느것 하나도 같은것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동백꽃하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시간 이후로 없을것 같네요. 이 쪽동백은 수피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목공예품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이곳 주변에 사는 한분은 겨울철이면 소일거리가 없어 쪽동백으로 지팡이를 만들어 내다 팔아 짹짹한 수입을 올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근원은 숲입니다. 숲의 구성원인 나무를 훼손하는 일은 우리의 산소가 부족해 진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산림감시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p>
(해설 8지점) 마족대의 전설	<p><b>* 마족대의 전설</b></p> <p>여러분 이곳에 평평한 바위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이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인지 우리 한번 추리해볼까요? (동심을 자극)</p> <p>네 이발자국은 바로 말발자국입니다. 임진왜란시 우리나라가 힘들 때 명나라에서 원군으로 온 이여송 장군이 말을 타고 지리산을 오를 때 생긴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p> <p>자! 잠시 동안이나마 눈을 감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하얀 백마를 탄 이여송 장군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말울음소리와 장군의 기상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하지 않나요? 역사 속에 우리 인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빈말 같지만 나라의 소중함과 애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해설하자고 다짐합니다. 숲과 야생동물 등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크게는 인류의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해설 8지점) 마족대의 전설	<p><b>* 마족대의 전설</b></p> <p>여러분 이곳에 평평한 바위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이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인지 우리 한번 추리해볼까요? (동심을 자극)</p> <p>네 이발자국은 바로 말발자국입니다. 임진왜란시 우리나라가 힘들 때 명나라에서 원군으로 온 이여송 장군이 말을 타고 지리산을 오를 때 생긴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p> <p>자! 잠시 동안이나마 눈을 감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하얀 백마를 탄 이여송 장군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말울음소리와 장군의 기상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하지 않나요? 역사 속에 우리 인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빈말 같지만 나라의 소중함과 애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해설하자고 다짐합니다. 숲과 야생동물 등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크게는 인류의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p>
(해설 10지점) 불일폭포 전설의 유래와 음이온에 대하여	<p><b>* 불일폭포 전설의 유래와 음이온에 대하여</b></p> <p>-음이온</p> <p>폭포근처나 숲에서 나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음이온의 역할 때문입니다. 폭포나 특히 소나무가 많은 곳, 물살이 빠른 강, 파도치는 바닷가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음이온은 날씨가 좋아 습도나 온도가 쾌적하고, 공기도 청정할 때 대기 중의 마이너스 정전압이 강하게 되어 공기 중의 음이온이 많아집니다. 음이온이 많아지면 뇌의 알파파의 활동이 증가 되어 긴장을 완화시켜 주어 편두통이 예방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Serotonin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자 지금부터 숨을 크게 쉬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셔보세요~!!!(참가자들의 긴장 완화 시킨다.) 바깥세상에서의 온갖 번뇌와 시름을 넘쳐나는 폭포수와 함께 흘려보내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 싱그럽고 푸르른 자연만큼이나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 불일폭포 전설과 불일암</p> <p>이곳은 남한에서 가장 긴 폭포를 자랑하는 지리산 십경의 하나 불일폭포입니다. 자연관찰로의 최고 자랑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p> <p>보조국사 지눌이 폭포 입구에 있는 암자에서 수도를 하였는데, 입적한 후 희종이 불일보조라는 시호를 내렸답니다. 그 시호를 따라 불일폭포라 하였고, 그가 수도하던 암자를 불일암이라 하였답니다.</p> <p>1970년대에 소실되었고, 현재 쌍계사에서 불일암 목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청학봉(좌)백학봉(우)사이의 협곡으로 이루어져있고, 계절에 따라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깊은 물줄기가 연중 마르지 않아 폭포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후 이곳에 와보면 아름다운 무지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따라 가면 그 끝에 행복이 숨어있다는데, 여러분도 이곳 불일폭포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일폭포의 전설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게 습니다. 재미가 있으니 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p> <p>자 ~~주목 하시고</p> <p>불일폭포는 하동의 명소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풍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천길 낭떠러지에 흐르는 비류가 직하하여 소를 만들었는데 그 소를 용소라 부른다. 용소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p> <p>아득한 옛날 불일폭포가 생기기 전의 일이다. 불일폭포가 있던 골짜기 물이 곱게 흘러내리던 용소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것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용소 옆에는 불일암이란 암자가 있어 스님이 수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뇌성이 치고 벼락이 나무를 때리며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 쳤다.</p> <p>산이 썩 갈라지고, 용소에서는 이무기가 용이 되어 푸른 빛을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쿵쾅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비가 마구 쏟아졌다. 이윽고 비가 멎고 뇌성도 잠잠해지자 불일암 스님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용소 옆에 하나로 서 있던 산은 두 개로 갈라졌고, 곱게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없어지고 천애 절벽이 생겨 물이 폭포가 되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스님이 절벽을 내려가 보니 절벽 밑으로는 새로 물길이 나 있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에는 큰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는 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스님은 이는 분명 부처님의 자비가 내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쌀을 암자로 옮겼다.</p> <p>그 다음날 스님은 다시 그 절벽의 뚫어진 구멍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는 또 쌀이 나와 있었다. 구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쌀이 나오게 되자 스님은 이 쌀을 화개장터에 내다 팔기로 했다. 그래서 스님은 그 후부터 하루는 쌀을 구멍에서 옮기고 다음날은 그 쌀을 장터에 내다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의 쌀을 사는 아주머니가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쌀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올 것이 아니라 며칠 모아서 놓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시면 수고도 덜고 또 목돈도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지 모르겠군요."</p> <p>그래서 암자로 돌아와 밤새 곰곰이 생각하던 스님은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쳤다. "저 쌀이 나오는 구멍을 더 넓게 뚫는다면 반드시 더 많은 쌀이 나올 것이고, 그럼 장터 아낙의 말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스님은 구멍을 더 크게 뚫을 도구를 챙겨서 폭포로 내려갔다. 그러는 열심히 구멍을 뚫어 전보다 세배나 더 넓게 뚫었다. 구멍을 뚫은 스님은 내일부터는 세배의 쌀이 나올 터이니 마음이 흡족했다. 그리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밤잠을 설치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세우다시피 했다.</p> <p>날이 밝자, 스님은 큰 자루를 메고 절벽으로 내려가서는 곧 바로 크게 뚫어 놓은 구멍으로 가 보았다. 그러나 그 곳엔 세 배로 많은 쌀이 나와있기는 커녕 단 한톨의 쌀도 없었다. 스님이 욕심이 그만 쌀이 나오는 구멍을 막아 버렸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사람들은 그 쌀이 나오던 바위를 용추 쌀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마족대 전설	<p>마족대 전설 - 하얀 말로 환생한 아들</p> <p>문수리 밤재 입구에 있는 '두지바우'(뒤주바위)는 현재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바위가 갈라진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두지바우 근처에 늙은 부부가 아들 하나와 함께 살았다. 그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갑자기 불행을 당한 부부는 아들이 죽은 뒤 이레가 되도록 시체를 땅에 묻지 않았다. 이렛날 부부는 깜박 잠이 들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p> <p>꿈속에서 낯선 이가 찾아와 배가 고프니 밥을 한술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들 부부는 나그네에게 밥을 차려 주었고, 밥을 먹고 난 나그네는 부부에게 슬퍼하는 연유를 물었다. 외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나그네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보자며 이렇게 말했다.</p> <p>"이 아이의 무덤을 큰 바위 위에 만드시오. 그러면 저 세상에서 이 아이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요."</p> <p>그리고는 나그네가 사라져버렸다. 꿈에서 깬 노부부는 나그네의 말을 들어 이튿날 두지바우 위에 죽은 아들의 묘를 만들기 시작했다. 바위 위에 아들의 시체를 올려놓고 흙과 잔디를 날라다 무덤을 만들었다. 묘를 다 만들고 부부가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바위가 반으로 갈라졌다.</p> <p>그리고 갈라진 틈으로 아들의 무덤이 내려앉으며 푸르스름한 안개가 퍼져 나왔다. 잠시 후 그 안개에 휩싸여 하얀 말 한 마리가 뛰쳐나오는 것이 아닌가. 말은 부부에게로 가까이 다가왔고, 부부는 그 말을 아들로 여겨 데려다가 극진히 길렀다. 두지바우 한 귀퉁이에는 당시 말이 뛰쳐나오며 남긴 발굽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이후 바위가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자연 속에서 흐르고 있는 불일폭포 역사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마무리 및 인사</p>	<p>마무리 및 평가</p> <p>여러분 이곳 지리산은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수많은 왜세의 침입으로 많은 문화재의 소실과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병들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뒤로한채, 아지곶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공원에서는 지금 현재의 탐방객들과 후세대의 탐방객들이 이곳 자연호나경을 보다더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p> <p>자연의 주인공은 바로 자연입니다. 이말을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p> <p>하산하시는길 끝까지 조심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p>